

## 믿음직한 대표자 동지들께

12월 15일...

여러분들의 결의로 광주전남지역의 98년 여학생운동을 이끌어 나갈 11기 남녀대협 권위있는 조직의 대표로 살아간지가 어언 3달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믿음직한 모습덕분에 전남대학교 8천여학우와 2만학우만을 책임지고 싶다고 생각했던 저의 고민이 이제는 서서히 5만여학우와 10만학우의 대표로 나서자고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조직은 수없이 다양한 얼굴처럼 많은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 굳건한 조직으로 되는 가 아니면 개인의 이익으로 운영되는가 하는 것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와 그리고 그 대표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는 힘이 바로 조직의 힘을 좌우할 것입니다. 한국사회속에서 한총련의 운동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한총련 정당했기에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 불패의 신념이 있기에 4천만 민중의 삶을 7천만겨레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6년 연대항쟁, 97년 출범식투쟁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한총련 다시 일어설 때가 온것입니다.

무참히 깨어져버린 한번의 회의와 간부들에게 첫모습을 드러내려고 했으나 실패해 버린 남녀대협 일꾼학교를 겪고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달동안의 저의 활동이 많이 미약했음을 반성되었으며 대표자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함께하지 못하고 부담적인 사업으로만 이야기했었던 저의 고민을 되돌이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표자동지여러분!

남녀대협의 고민은 저 개인이나 간부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자동지여러분은 각 대학의 여학생운동을 고민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지역의 여학생운동도 함께 고민하고 책임있게 논의해야 함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부대끼고 싶습니다. 제 일생에 있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98년. 어썸 제 일생의 최고의 해로 남게될지도 모를 98년을 함께할 여러분들과 평생동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힘들게 건설되고 있는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50만 여학우의 조직 4기 전여대협을 생각하며

오월의 딸 자주의 새바람  
11기 남녀대협 임시의장  
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수진